

4월 20일(월)

**제목: 스트레스 집에서 풀지 마세요**

사도신경/찬송:440장/누가복음1:5-7

사가라는 제사장이었다. 그 부인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 가문의 딸이었다.(5절)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흠이 없었다.(6절)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부부는 완벽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었다.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7절) 유대인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고 다산(多産)을 가문의 자랑으로 여겼다.(시127편)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죄인으로 취급되어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었다. 사가라는 목사(제사장)로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기들을 안고 축복기도 해주었을까? 그때마다 자기의 무자(無子)함에 대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축복의 모델이 되어야 할 목사로서 받는 이 스트레스가 자칫 가정을 위협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었다. 그가 아내를 힘들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부부애에 흠이 없었다. 나는 혹시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화풀이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스트레스를 집안에서 풀면 풀수록 그 가정과 그 자녀는 그만큼 위태로워진다.

4월 21일(화)

**제목: 임산부를 위하여(1)**

사도신경/찬송:445장/누가복음1:8-23

사가라는 제사장 평생에 한번이라도 해 볼까 말까하는 주의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된다는 소식을 통보받는다.(8-13절) 장차 태어날 그 아이는 ‘큰 자’가 될 사람이며(15절)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사람이었다.(16절) 이 메시지를 받은 사가라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이 위대한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태어난다.(15절) 시작부터 다른 아이였다. 아버지 사가라와 어머니의 엘리사벳의 간절한 기도로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언제부터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모태에 있을 때 부터이다. 모태의 아이의 태교를 위하여 영화를 보고 독서를 하고 음악과 영어를 듣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산부가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다.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소리, 찬송 소리, 성경 통독 소리를 듣는다면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뵈옵고 그의 은총을 입게 된다. 이 아이는 장래를 확신하지 않아도 큰 자가 되어있을 것이다.

4월 22일(수)

**제목: 임산부를 위하여(2)**

사도신경/찬송:300장/누가복음1:24-25

남편 사가라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이후로 엘리사벳은 곧 바로 수태되었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냈다.(24절) 왜 그녀는 임신 초기 5개월 동안 숨어 있었을까? 늙은 나이에 임신한 사실이 부끄러워서 숨은 것일까?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고, 무자(無子)함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되던 유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잉태함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자랑해야 마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이 이처럼 숨어 지낸 이유가 무엇일까? 출산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 경건으로 준비하였을 것이다. 태교는 아이 엄마의 마음과 정서를 중시하는 것이다. 임신 중 아이 엄마가 그만의 골방에서 말씀의 깊이 묵상하고 정성껏 기도 생활을 한다면 그녀의 마음과 정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차게 된다. 아이 엄마의 마음과 정서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이것이 곧 최고의 태교이지 않을까? 임신한 여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에 더욱 힘쓰는 것은 모태의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어머니로서의 최상의 선물이다.

4월 23일(목)

**제목: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사도신경/찬송:425장/누가복음1:26-38

엘리사벳이 임신한지 6개월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1절)고 하였다. 한 번도 남자와 자본 적 없으며(34절) 약혼한 남자까지 있는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유대법에 의하면 약혼 중이라도 남자가 죽으면 그 처녀는 과부로 간주되었다. 그런 처녀에게 곧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소리는 인간을 가지고 노는 괴악한 신(神)의 심술궂은 장난처럼 보인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를 믿음으로 받아드렸다. 자신이 비록 동정녀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자신을 임신시킬 줄 믿었다.(37절) 그녀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38절)응답했다. 놀라운 기도였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우리의 기도 중 가장 인기 있는 기도는 ‘당신의 뜻이 나의 뜻대로 바꾸어 주시길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나의 뜻대로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지 않은가? 마리아의 이 놀라운 기도는 오늘 현대 성도들에게 ‘당신네들의 기도는 틀렸습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4월 24일(금)

제목: 마리아의 찬가에 담긴 예언

사도신경/찬송:570장/누가복음1:39-56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가 이 사실을 엘리사벳에 알리자 그녀는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를 위한 찬가를 부른다.(39-42절) 이 노래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요(43절), 비천한 여인이지만 만인 중 가장 큰 복을 받는 자가 되며(48절) 이 이후로는 교만한 자, 권세있는 자들이 비천하게 되며 주린 자들이 배불리 먹고 부자들이 빈손으로 돌려 보내지게 된다(51-53절)는 일종의 사회 혁명적인 색깔을 띤 파격적인 노래였다.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와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세상의 지위가 없어지고, 비천한 자가 리더가 되는, 사회의 신분과 계급이 타파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존중과 사랑만 있는 평화로운 곳이다. 비천한 출신의 여인 마리아가 가장 높으신 분의 은총과 택함을 받은 이 사건은 장차 세상 강자들의 힘의 논리가 무너지고 비천한 자들이 높임을 받는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공동체이다. 이런 면에서 교회도 약자들이 존중 받고 강자들이 그들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한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이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